

This file has been cleaned of potential threats.

If you confirm that the file is coming from a trusted source, you can send the following SHA-256 hash value to your admin for the original file.

55ad327133e17f61e3a337ccea1e11b461fb76da89ccd732459bd551bd41811d

To view the reconstructed contents, please SCROLL DOWN to next page.

- 주요 뉴스: 미국 자산시장, 인플레이션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가능성
  - 유로존 8월 Sentix 투자심리지수, 19.6으로 금년 4월 이후 최저 수준
  - 영란은행 통화위원, 최근의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은 1970년대와는 다른 양상
  - 골드만 삭스, 소비둔화 등을 반영하여 미국의 2021년 성장을 전망치를 하향 조정
- 국제금융시장: 미국 증시는 휴장. 유럽은 경기회복 기대 등이 영향
 

**유럽 주가 상승[+0.7%], 달러화 강세[+0.2%], 독일 금리 하락[-1bp]**

  - 주가: 미국 증시는 노동절로 휴장  
유로 Stoxx 600 지수는 양호한 독일 7월 제조업 수주와 기술주 강세 등으로 0.7%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그 동안의 하락에 따른 저가매수 등이 반영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모두 0.1% 하락
  - 금리: 미국 채권시장은 노동절로 휴장  
독일은 이번 주 ECB 통화정책회의 앞두고 관망세 분위기 가운데 소폭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157.5원, +0.5원) 포함, 한국 CDS 포함

|    |      | 9/6일    | 9/3일    | 전일대비   |                 |       | 9/6일    | 9/3일    | 전일대비   |
|----|------|---------|---------|--------|-----------------|-------|---------|---------|--------|
| 주가 | 미국   | 휴장      | 4,535.4 | -      | 국채<br>금리<br>10y | 미국    | 휴장      | 1.32%   | -      |
|    | 유럽   | 475.19  | 471.93  | 0.69%  |                 | 독일    | -0.37%  | -0.36%  | -1bp   |
|    | 중국   | 3,621.9 | 3,581.7 | 1.12%  | CDS<br>5y       | 한국    | 18bp    | 18bp    | 0bp    |
|    | 일본   | 29,660  | 29,128  | 1.83%  |                 | 중국    | 33bp    | 33bp    | 0bp    |
|    | 한국   | 3,203.3 | 3,201.1 | 0.07%  | 위험<br>지표        | EMBI+ | -       | 348     | -      |
| 환율 | 달러지수 | 92.22   | 92.04   | 0.20%  |                 | VIX   | 휴장      | 16.41   | -      |
|    | 유로화  | 1.1870  | 1.1880  | -0.08% |                 | WTI유  | 휴장      | 69.29   | -      |
|    | 엔화   | 109.86  | 109.71  | -0.14% | 원자재             | 구리    | 432.7   | 432.6   | 0.02%  |
|    | 위안화  | 6.4582  | 6.4552  | -0.05% |                 | 금     | 1,823.3 | 1,827.7 | -0.24% |
|    | 원화   | 1,156.5 | 1,157.0 | 0.04%  |                 |       |         |         |        |

주: 주가는 미국 S&P500, 유럽 Stoxx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 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 금일의 포커스

### ■ 미국 자산시장, 인플레이션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가능성

- 세계 최대 헤지펀드 Bridgewater의 Rebecca Peterson은 금융시장이 ①현재의 인플레이션을 일시적 현상으로 인식하고, ②연준도 시장에 반영된 수준의 긴축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나 두 가지 모두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평가
- 공급측면의 악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공격적 재정정책과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와 양적완화를 통해 소비 등 수요측면은 강하게 유지되고 있어 임금 상승과 선순환적 경기회복(self-reinforcing economic recovery)이 예상되기 때문
- 연준이 과거 수십년간 경험상 과잉긴축이 뒤늦은 긴축대응 보다 위험하다고 평가해 긴축지연(slower tightening)등 완화적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음은 이해하나, 성장과 인플레이션 사이의 균형 유지도 쉽지 않은 과제.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사후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시장에 반영된 자산가격과 데이터 추세, 연준의 대응 변화 등을 감안할 때, 보다 더 높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부터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호할 필요

##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 유로존 8월 Sentix 투자심리지수, 19.6으로 금년 4월 이후 최저 수준

- 이번 결과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반영. 하위 구성항목인 기대지수 역시 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

### ■ 유로존 은행권, ECB가 요구한 기후변화 대응 심사를 위한 준비가 부족

- 대부분의 은행들은 2022년 예정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를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고객사의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
- Fitch의 Jo Lock은 다수의 은행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많은 압력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라고 평가

### ■ 영국 금융감독청, 과도한 암호화폐 투자의 위험을 경고

- 찰스 랜덜 청장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투자금액을 모두 잃을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 암호화폐 투자의 역사가 매우 짧아 장기 측면에서 암호화폐가 향후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부연

## ■ 영란은행 통화위원, 최근의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은 1970년대와는 다른 양상

- 캐서린 만 위원은 주요 다국적 기업의 가격결정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 또한 임금상승률과 실업률의 상관관계도 이전보다 약화되었고, 최근 환율과 유가의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

## ■ 중국 부총리, 정부는 민간경제 지원을 지속할 방침

- 류허 부총리는 당국의 민간부문 지원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민간부문은 국가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 이번 발언은 최근 정부의 규제강화 등에 따른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추정

##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외국인의 금융시장 참여 확대를 지속 추진할 계획

- 이 후이만 위원장은 국내 금융시장과 외국 금융시장의 통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평가. 또한 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의 감독은 해당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좀 더 실용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겠다고 언급

## ■ 골드만 삭스, 소비둔화 등을 반영하여 미국의 2021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

- Ronnie Walker 이코노미스트는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이전(6.0%) 대비 낮은 5.7%로 제시. 코로나 19 확산, 정부의 재정지원 감소 등으로 소비가 당초 기대를 하회할 수 있다고 설명. 다만 2022년 성장률 전망치는 4.5%에서 4.6%로 상향

## ■ 호주 재무장관, 경제 다변화를 추진하여 중국 의존도를 축소할 필요

- 조쉬 프라이덴버그 장관은 중국과의 긴장이 지속될 수 있으며, 기업들은 이러한 여건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 또한 전략적 경쟁의 증가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직면해야 할 새로운 현실이라고 부연

## 주요 경제지표

###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9/6 현지시각 기준)

- 독일 7월 제조업 수주(전월비): 3.4%, 6월(4.6%), 예상치(-1.0%)

### ■ 주요 경제 이벤트(9/7 현지시각 기준)

- 유로존 2/4분기 성장률, 독일 7월 산업생산, 9월 ZEW 경기기대지수
- 중국 8월 무역수지, 호주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중국 경기둔화 신호, 각국 통화정책에 미국 고용충격만큼 중요한 사안 - 블룸버그**  
(China's Slowdown Is Just as Important as the U.S. Jobs Shocker)
  - 최근 중국에서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은 성장이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 인민은행은 중소기업 지원, 지방정부채권 발행, 지급준비율 추가 인하 등 경기부양을 위한 완화적 기조의 통화정책 추진 의사를 표명
  - 아울러 수십 년 간 급속한 성장을 이어온 아시아 경제도 우려되는 상황. 이에 연준 외에도 연준의 행보에 따라 통화정책 변경을 고민하는 각국 중앙은행은 중국 경기 둔화 우려를 통화정책 결정에 반영할 필요
- **국가 내·국가 간 불평등 심화, 신속한 논의와 협력을 통한 해결이 요구 - Financial Times**  
(Covid-19 has made fighting inequality more critical than ever)
  - 기후변화 및 코로나 19 위기 대응에 있어 민족주의 성향 강화 등 자국 우선주의와 국가별 부양 정책 등은 심각한 불평등을 야기. 이는 농작물 작황 감소와 코로나 19 백신 부족 등으로 연결되어 부유국 이외의 국가에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이 불가피
  - 이에 다가오는 UN총회와 COP26 기후 정상회담에서 코로나 19 백신의 정당한 분배와 글로벌 그린 뉴딜에 대한 효과적인 약속이 필요. 신속한 논의와 세계 협력으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암울한 미래는 피할 수 없음을 인식
- **미국 연방정부의 특별실업급여 종료, 경제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 블룸버그**  
(Jobless Americans Are Stuck in Backlog Nightmare as Pandemic Benefits Expire)
- **미국 의회, 건전화폐 유지를 위해 이중책무 폐지 등 연준 권한을 축소할 필요 - WSJ**  
(No More 'Dual Mandate.' Let the Fed Focus on Sound Money)
- **연준, 향후 예상되는 재정긴축 전환에 따른 경제적 충격 대비가 중요 - 블룸버그**  
(The Federal Reserve Faces Its Greatest Pandemic Test Yet)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ikyoon@kcif.or.kr](mailto:ikyoon@kcif.or.kr)